

조소앙과 삼균주의에 대한 재조명

김 용 호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소앙(趙素昂)은 19세기말에 불어 닦친 세계화의 물결에 희생된 한민족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토록 노력한 분이다. 그가 우리 민족의 식민지 시대와 분단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바친 일생은 21세기 세계화의 거센 물결을 헤쳐가려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이론가인 조소앙은 공산주의 세계화와 자본주의 세계화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에 독립운동과 건국을 위해 노력하면서 민족의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래사상을 수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보편적이고 새로운 정치이념만이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독립을 쟁취하여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 아래 그가 개발한 삼균주의는 열린 민족주의와 함께 균권(均權), 균부(均富), 균학(均學, 均知)의 균등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휴유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조소앙, 삼균주의, 독립운동, 세계화, 세계문명 표준, 신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I. 서론: 조소앙과 삼균주의를 재조명하는 이유

이 글의 목적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이론가인 조소앙(趙素昂)과 그가 개발한 삼균주의(三均主義) 정치사상을 재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소앙선생의 일생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중화질서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 지구적인 사고와 활동을 전개한 세계화의 제1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이 그의 삼균주의 정치사상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그가 자본주

의적 세계화와 공산주의적 세계화가 첨예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양자의 장점과 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사상에서 출발하여 우리들의 몸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공산권의 붕괴이후 오늘날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노선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여러 나라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의 삼균주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 조소앙의 일생에 대한 재조명

조소앙은 19세기말에 불어 닦친 세계화의 물결에 희생된 한민족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토록 노력한 분이다. 그가 우리 민족의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바친 일생은 21세기 세계화의 거센 물결을 헤쳐가려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물론 소앙선생이 겪은 세계화의 물결과 21세기 초반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세계화는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지만 소앙의 생애는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교훈을 남겼다.

1. 세계 문명표준에 맞는 우리의 것을 추구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점은 세계문명 표준(global civilization standard)이다. 우리들은 19세기 말에 중화질서에 함몰되어 새로운 문명 표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 결과 나라를 빼앗기는 국난을 겪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 때문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표준에 대해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반듯이 필요한 일이다. 국경을 넘어선 경제활동의 증가, 정보화의 추세, 기존의 정주(定住) 문화 대신 신유목적 생활의 대두, 일반 시민들과 비정부기구(NGO)의 전 지구적인 활동 등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계 문명 표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따라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문명 표준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들이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경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세계화도 이중적인 모습을 안고 있었으니, 산업화나 민주화, 국민국가의 건설 등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지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에서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깊이 헤아려서 새로운 문명 표준을 선택적으로 배우고 추종해야 한다. 둘째, 세계 문명 표준의 기본은 같을 수 있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기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만든 세계 표준만을 고집하는 경우 생명력이나 추진력이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흔히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고 권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앙의 일생에서 우리들은 그가 우리의 전통과 고유사상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이념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서구를 비롯한 외국의 사상과 문물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소앙은 이론가이자 행동가였기 때문에 항상 행동에 필요한 이론을 개발하고, 이론을 널리 전파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소앙은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민족의 통일과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외래 사상으로 무장해서는 민족의 통일과 단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소앙은 단군사상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민족은 어떠한 외압에도 견뎌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민족종교를 창안하려고 하였다(박성수 2005, 26).

소앙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가르침을 중시한 결과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화세계(理化世界: 온 세계를 올바르게 감화시킨다), 수미균평위 흥방보태평(首尾均平位, 興邦保太平: 우리 국민 모두가 머리부터 끝까지 고르게 잘 살게 되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을 자신이 개발한 삼균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특히 소앙은 단군을 불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등 여섯 성인 가운데 가장 앞에 두었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여섯 명의 성인이 나타났는데, 그 첫째 성인이 단군이었고, 둘째가 불타(석가모니), 셋째가 공자, 넷째가 예수, 다섯째가 소크라테스, 여섯째가 마호메트

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 속에는 서로 공통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여섯 성인이 모두 일신의 아들이고 다른 이름일 뿐이므로 이들 여섯 명의 성인을 함께 믿고 따르자는 육성교(六聖敎)를 창안하였다.

소양선생이 우리의 고유한 전통사상으로부터 독립운동과 새로운 국가건설에 필요한 이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5세부터 한학자인 조부 성룡(性龍)씨로부터 전통적인 한문교육을 받았고, 15세 때 성균관에 입학하여 사서삼경을 모두 익혔기 때문이다. 소양은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소양기설(素昂氣說)」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유기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특히 서화담의 주기설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홍선희 1975, 56). 이처럼 삼균주의는 우리의 전통사상에 기반을 둔 정치이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2. 외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소양이 전통사상에만 얽매어 있지 않고 서양사상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20세기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편적인 정치사상을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그의 나이 16세가 되던 1904년에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서 동경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문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년만인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소양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함께 나라를 되찾는 일에 골몰하여 일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다음해에 복교하였다. 그가 1907년에 동경부립 제1중학교를 졸업한 후 1908년에 명치대학 법과에 입학하였다. 4년만인 1912년에 25세의 나이로 졸업하였다.

그가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과 문명에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백씨(伯氏) 용하(鏞夏)씨의 조언과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의 백씨는 독일 주재 참사관으로 있었는데, 을사보호조약 후 동경을 거쳐 귀국하면서 소양을 만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양선생의 일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세계화의 흐름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중국의 삼민주의와 대동사상, 기독교 평등사상, 서구의 사회진화론과 사회주의 사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사상을 습득하

였다. 그가 1908년 명치대 입학후 중국혁명가 타이지타오(戴季陶)와 접촉하면서 순문의 산민주의를 알게 되고, 1911년 10월에 전덕기복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소앙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외에 강유웨이(康有爲)의 대동사상(大同思想), 량치차오(梁啟超)의 등명선자유사 등을 포함한 한 동양사상을 두루 접하고, 베이컨(Francis Bacon)의 수상록,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 톨스토이(Leo Tolstoi)의 전쟁과 평화,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수상록, 원부인권론 등 다양한 서양 저서를 탐독하였다(김용호 1979, 24).

그가 동경 유학시절에 단권 글을 보면 그의 사상적 성장과정을 잘 알 수 있다. 소앙은 이 무렵에 조선조 사회를 비판하면서 준왕사상(尊王思想)을 버리고 자유주의, 입헌 정체, 민권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소앙은 특히 강유웨이의 민권 사상과 대동사상을 흥미하였는데, 후자는 동양의 전통적인 가족제도, 남녀차별, 직업상의 귀천, 계급제도, 국가 간의 불평등을 완전 해소한 유토피아의 세계 즉 <大同의世>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이 나중에 그의 산균주의에 반영되었다. 1912년 소앙이 명치대에서 근대학문을 읽고 닦은 후 귀국하였으나 이미 조국은 1년만에 중국 망명길에 나서면서 1945년 환국할 때까지 32년간 낯선 이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하였다. 그가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은 만주, 북경, 상해, 중경, 모스크바, 런던, 체코바, 로테르담 등 세계적인 지도자를 이 모이는 장소였다. 처음에 소앙의 항일운동은 주로 상해, 북경, 만주 등 중국에 서 시작하였으나 1919년 3·1 독립선언 이후에는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소앙은 1919년 4월 동생 응주(鏞周) 등이 국내에서 조직한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외교를 파원으로 파리 평화회의 대표단을 지원하고 만국사회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를 경유하여 6월 중순 파리에 가서 김구식 등과 합류하였다. 8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만국사회당대회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독립에 관한 3개조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것이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한 최초의 자유로운 국제회의였다. 이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제2회 만국사회당 대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문제 실행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소앙은 계속하여 런던, 파리 등지에서 영국 노동당의 맥켄지(Thomas McKenzie) 등을 만나 한국우인회(韓國友人會)를 만들어 한국 독립방안론 논의하였다. 1920년에는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H. Bergson)를 만나 <시간의 꼬리>에 관해 토론하였다. 소앙은 1920년 4월에 다시 네덜란드 로

테르담으로 가 만국사회당 본부에서 한국 독립승인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런던으로 가 맥켄지와 의논하여 영국 노동당 지도자 헨더슨(Henderson), 맥도날드(McDonald) 등의 협력을 얻어 영국 하원에 한국문제에 관한 4개조 질문안을 제출하였다. 1920년 8월부터 11월까지 덴마크, 단찌히,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소련혁명기념대회에 참석하였다. 1921년 3월까지 8개국 대표 25인 시찰단원의 일원으로 러시아 각지를 시찰하고 모스크바에 귀환하였다. 3월에는 모스크바 공산당대회를 참관한 후 이르쿠츠크, 치타 등지를 거쳐 5월에 북경에 도착하여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상해로 돌아왔다. 이 시기에 소양은 영국노동당의 개량사회주의를 포함한 유럽 사회주의사상, 러시아 공산주의, 유럽과 중국의 무정부주의 등을 섭렵하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소양이 사회주의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러시아 볼셰비키의 계급 투쟁론과 폭력주의에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간의 모순을 지적하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계급투쟁보다 민족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김용호 1979, 38-39).

1919년부터 21년까지 2년여 동안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소양선생은 무수히 많은 정치지도자, 혁명가, 철학자, 시인 등을 만나 철학적, 정치적 문제 등을 토론하였는데, 그 중에는 소양이 런던에서 인도의 시성 타골을 만나 고·시·공(故·時·空)의 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하상령 2004, 17). 이처럼 소양은 우리의 전통사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폭넓게 외래사상을 섭렵한 결과 한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필요한 보편적인 정치이데올로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3. 중도 통합의 리더십 수립

소양은 민족의 장래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설계하였다. 그는 자신의 것을 근본으로 삼되 남의 것을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남의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폭력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중도의 길을 모색하였다.

소양은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당시 독립운동가 중에서 보기 드물게 사상을 개발

하고 이론으로 무장된 정치인이었다. 특히 소앙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당시 분열되어 있던 정치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점은 첫째, 우리의 고유사상과 동서양의 외래사상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념을 개발하려는 점에서, 둘째, 독립운동과 해방이후에 좌익과 우익을 아우를 수 있는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상세하게 논술했기 때문에 후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소앙은 전 생애를 민족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는 바, 분열과 내분을 민족의 일대 좌악으로 생각하고 민족의 통합 없이는 독립과 새로운 국가건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소앙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정과 해방후 건국시기에 중요한 고비마다 분열되어 있는 정치세력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독립운동세력을 통합시키려는 첫 번째 노력은 1917년에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진영은 조선조 말기의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계보에 따라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당시 제1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러시아 정부가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1차대전이 종결되면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단결이 필요한 때라 생각하여 대동단결을 선언하였다. 소앙은 신규식, 박용만, 박은식, 신채호, 윤세복, 조성환 등 14명이 연명하여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 속에는 “합하면 서고 갈라지면 자빠진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크게 합동하고 모두가 단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시대의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단결을 촉구하였다(박성수 2005, 29). 불행이도 1차대전에서 일본이 편든 연합국이 승리하자 대동단결선언은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소앙이 독립운동세력을 통합시키려는 두 번째 노력은 1920년대 이후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분열, 특히 좌우익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소앙은 독립당이나 공산당이 서로 다르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의 독립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주장하면서 대동단결을 호소하였다.

독립당이나 공산당의 최후 목적은 독립전쟁에 있다. 독립당원이여 정면의 적이 일본이다, 공산당원이여, 정면의 적이 어찌 독립당이라 하나, 공문공언(空文空言)을 광호(狂呼)치 말고 계통적 이론과 전략에 기초하여 해내의 동포를 결렬되

지 않게 노력하기 바란다. 전도의 승리는 京城(서울)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돌아 갈 것이니 어느 쪽이 건국의 영웅이 될지 눈을 닦고 기다려 볼 것이다. 제발 양당의 공조협진을 바라마지 않는다(조소앙, “독립당과 공산당의 전도, 독립신문, 1922년 5월 6일자).

소앙은 체계적인 이론과 전략으로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을 만든 후 독립운동세력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소앙의 삼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건국강령이 1940년 말에 발표되자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호응하였다. 민주사회주의 독립운동단체인 조선민족해방동맹(대표 김성숙)이 찬동하여 임시정부 지지를 성명하였고, 이어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조선민족혁명당(위원장 김규식, 서기장 김원봉)도 건국강령을 지지하고 임시정부와 연합하기를 바랐다. 그 결과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가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에 편입해 들어왔다. 이리하여 임시정부는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혁명자연맹, 조선민족 혁명자 통일동맹, 조선무정부주의자 동맹 등 여러 단체를 포섭하여 명실공히 임시정부와 한독당 중심으로 군사통일과 정치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끝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 좌우익이 분열된 채 해방을 맞았다. 소앙은 해방이후에도 좌우익 통합을 시도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남북분단의 희생물이 되었다.

III. 삼균주의에 대한 재평가

우리들이 세계화시대에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사상이 세계화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해 주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화의 추세와 부작용을 살펴보자. 오늘날 세계화추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세계화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 활동의 세계화 추세가 가장 현저한 가운데, 여성, 환경,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류를 비롯한 대중문화 활동과 소비 패턴이 세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세계화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화의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국가, 특히 세계화의 비수혜 국가나 집단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제금융시장의 팽창과 자본이동,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다국적화,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개인 및 재화의 이동 등을 증가시키려는 힘이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흥공업국(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경제통상 마찰의 증대와 함께 국제경제질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화가 아무런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로서 세계경제의 불안, 국제금융위기, 대량 실업,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의 위협, 소외국가나 소외 계층의 반발 등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퓰리즘(populism)이나 보호주의, 또는 민족주의의 부활을 가져오거나 국제경제활동의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가 과연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세계화가 무한경쟁에 이기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의 철폐를 핵심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한 각국 정부는 고용, 복지, 환경 등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위 20%는 세계화의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80%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가는 소위 "20대 80의 사회"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약 20% 정도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80%는 실업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그리고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Martin 1996).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계 각국의 국민을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클린턴정부시절 오랜 경제호황과 낮은 실업율을 구가해 온 미국에서조차 세계화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했다. 지난 20여년간 발생한 소득 증가분의 97%가 소득 상위자 20% 안에 드는 가구에게 돌아갔다. 한편 하위 20%의 소득은 1979년에 비해 1996년에는 33%나 감소하였다(Hertz 2003, 28). 한편 세계화의 양대 축의 하나인 영국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부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1991년 대처 총리가 집권했을 때 전체 인구의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3%, 빈민층 20%가 2.4%를 차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그 수치가 각각 50%, 2.6%가 되었다. 그 동안 영국의 GNP가 상승했으나 규모가 커진데 비해 가

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적은 몫의 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20대 80의 사회를 해결해야 할 국가는 더욱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토플러가 지적한 것처럼 현존하는 국가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소양선생이 제창한 삼균주의에서 세계화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특히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우리들이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세계화에 저항하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발흥을 막기 위해서는 삼균주의에 나타난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둘째, 세계화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비롯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삼균주의에서 찾을 수 있고, 셋째, 21세기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등장에 따른 정보격차, 지식격차를 해소하려면 삼균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균지, 균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소앙이 창안한 삼균주의는 개인간의 불평등, 민족간의 불평등, 국가간의 불평등, 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세계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삼균주의는 다른 평등사상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균지, 지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21세기 지식사회에 매우 적절한 정치이념이다.

1. 열린 민족주의와 세계 일가 사상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아직도 민족주의적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중화질서의 역사성과 영역을 임의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민족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영토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동양 3국의 민족주의적 대립을 해소하여 협력과 평화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삼균주의 사상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사상이므로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삼균주의는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머

무르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 균등주의를 제창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일가의 이상사회를 목표로 하는 열린 민족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동양 3국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소앙은 한민족을 국제질서에서 소외되어 피해를 입은 피압박민족으로 규정한다. 식민지 상태는 국난이며, 민족사에 있어서 큰 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한국 문원』, 『유방집』, 『한국 주자사고』, 『발해경』 등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과 불멸성을 발견하였다. 소앙은 이를 기반으로 망국 민족에게 조국애를 고취하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언하였다. 민족간에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민족간, 그리고 국가간에는 균등사상에 의한 평등외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민족의 해방은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이 아니라 민족균등주의를 실현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한민족의 해방은 일본 군국주의에 사로잡힌 일본 민중의 해방이며 동아시아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소앙은 제국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제국주의 세력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일반 민중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국제주의를 주창하였다. 다시 말해 삼균주의가 식민지시대에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을 부르짖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출발했으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열린 민족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투쟁대상은 일본 인민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한국을 침략, 강탈하는 일본 제국주의자, 곧 일본의 군벌, 재벌, 정벌 및 그들의 주구배들이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주, 자결, 자유를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 민족 내지 기타 민족의 동일한 요구도 존중하여 마지 아니한다(삼균학회 편 1979, 221).

소앙은 제국주의 세력이 약소국가를 침탈하는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강대민족이 약소민족을 탄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약소민족이 민족적 계급성을 자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민족균등주의사상은 민족간, 국가간의 균등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일가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소앙이 주장하는 “세계일가”는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팔굉일우(八紘一宇)”나 “세계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신용하 2002, 87). 신용하 교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기 민족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동아시아를 제패하려는 패도적 야심과 폭행을 감행하면서 입으로는 “팔굉일우” “왕도락토(王道樂土)” 건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을 무력으로 강점하여 한민족을 소멸시키려 하고 노예로 만들면서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시동인(一視同人)”을 말하고 있다.

소앙의 세계일가는 제국주의자들의 각종 미사여구와는 전혀 다른 “왕도적 세계일가”라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모든 무력침략을 반대하고 세계 각 민족의 독립 생존과 자유발전을 존중하며, 상호협조를 원칙으로 하여 인류행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소앙은 우리들이 세계일가를 달성하려면 먼저 세계 각민족의 문화 수준과 경제 수준이 제고되어 동일 수준에 도달한 시기에, 세계 각 민족들과 국가들이 균등하게, 어느 한쪽의 희생없이 균등하게 교류 융합되어 결국 민족국가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불필요하게 되면 세계일가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소앙의 세계일가는 먼 훗날 인류가 도달하게 될 최고 이상이 실현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소앙의 삼균주의는 제국주의와 패권주의가 난무하던 시대의 속임수로서 세계주의와 세계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21세기에든 유용한 민족주의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종 목표로서 균등 사회 실현

오늘날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계 도처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초국적기업을 유치하지 않는 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규제 철폐, 민영화, 시장화의 확대라는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거역하기 힘들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고용 불안, 임금 저하, 복지 감소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그런데 소양은 원칙이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에는 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찍이 정치·경제·교육·문화적 균등과 함께 교육적 균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상 등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세계화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들고 있으며,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 각국이 강조해 온 부국강병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경제력과 군사력에 못 지않게 지식이 중요해진 자원이 되었다.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수출이 자동차 1만 대를 수출하는 것만큼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걸 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나라가 지식강국, 정보강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교육과 지식 강조

세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양선생의 경제균등론을 제대로 이해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는 세계화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기 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 는 함이 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들이 오늘날 삼민주의에 주목하는 주된 이유 는 복지를 구하려면 일단(한단) 독립(단)이 주장하는 평등의 기본 정신을 중시(상)으 "인류의 일체의 문명은 생활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영구한 평화 유적 평등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는바, 이 모두를 통합하였다. 소양은 유주의 사상을, 민족간의 평등과 국가간의 평등에서 민족주의 사상을, 경제적, 공 평을, 민족간의 평등, 국가간의 평등이다. 그런데 삼민주의는 정치적 평등에서 자 체적 평등, 교육적 평등이고, 다른 1개조는 정치의 주체와 대상에 따른 개인간의 이렇게 2개조의 <삼관> 원칙이 있다. 1개조는 사회적 영역에 따른 정치적 평등, 경 여 세계인간의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삼민주의는 의 균등이 실현되고 나아가 민족대 민족의 균등, 국가대 국가간의 균등이 이루어 소양이 창안한 삼민주의는 균권, 균부, 균지(또는 균화)를 통한 개인대 개인간 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분신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대안으로 걸 체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

소앙은 개인간의 균등한 생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균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가 제창한 삼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다. 그가 교육 균등을 강조한 배경에는 아마도 인간의 이성과 지적 능력은 타고 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인간관은 유토피언 사회주의자인 오웬(Robert Owen)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후자는 “보편적으로 인간은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파악하고 “가장 훌륭한 국가적 교육제도를 가진 정부가 최고로 잘 통치하는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오웬은 인간이 어린시절부터 옳은 일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누구나 선량하고 행복한 일생을 영위할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소앙의 교육균등론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사에서 발견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불평등이라는 역사적 모순과 일제 치하 한국 교육의 현실적 모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민족사에 나타난 “인민수학권지불평등(人民受學權之不平等)”과 일제 강점 하에서 일본인의 교사직 독점, 한국인 교사에 대한 차별, 한국인에 대한 입학제한, 졸업생의 취직제한, 고시 차별, 일본인의 학생 탄압, 이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반항운동 등을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이러한 교육상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소앙은 교육의 대상을 개인교육, 민족교육, 국제교육으로 나누고, 교육의 단계를 지식수준의 제고, 일반대중의 두뇌과학화, 개인과 국가와 민족간의 평등과 세계 일가 구현이라는 3단계로 구분하였다. 우리가 그의 교육균등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날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격차, 지식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IV. 결론: 미래의 이데올로기로서 삼균주의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들이 소앙의 일생으로부터 21세기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가 개발한 삼균주의가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세계화의 후유증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평생을 민족의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래사상을 수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보편적이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치이념을 통해 민족의 단결을 이루어 독립을 달성하고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그는 이론과 행동을 겸비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그가 개발한 삼균주의에 나타난 열린 민족주의와 균권(均權), 균부(均富), 균학(均學)의 균등론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휴유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은 삼균주의를 미래의 이데올로기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한용원 2004, 55). 삼균주의가 과거의 정치이념이 아니라 미래의 이데올로기로서 생활화되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분단의 민족적 갈등을 해소하여 통일한국의 이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탈근대화의 시대에 삼균주의가 단순한 교훈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적실성, 생명력, 실천력을 가진 미래의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용호. 1979.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수. 2005. “조소앙의 통일독립운동.” 『삼균주의 연구논집』 26집.
- 삼균학회 편. 1979. 『소앙선생 문집』. 서울: 햇불사.
- 신용하. 2002. “조소앙의 사회사상과 삼균주의.” 『삼균주의 연구논집』 23집.
- 하상령. 2004. “삼균주의 소견” 『삼균주의 연구논집』 25집.
- 한용원. 2004. “통일이념으로서의 삼균주의: 이념 통합의 준거와 과제를 중심으로.” 『삼균주의 연구논집』 25집.
- 홍선희. 1975. 『조소앙사상』. 서울: 태극출판사.
- Hertz, Noreena 저 · 조영희 역. 2003. 『소리없는 정복』. 서울: 푸른숲.
- Martin, Hans Peter 저 · 강수돌 역. 1996.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카디널.

ABSTRACT

Reflections on Cho So-ang's Life and His "Samkyunju-ui" in the Era of Globalization

Yang-Ho Kim | Inha University

This paper intends to reevaluate the life of an independence movement leader and political ideologue, Cho So-ang, from which some wisdom may be derived to liv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addition, this paper also tries to reevaluate his "Samkyunju-ui" which needs to be developed in order to prevent some negative effects of globalization. Cho had strong motivation to introduce a new political ideology as a guidance for the nation's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a new state-making after the country's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basis of our own history and traditional thoughts without rejecting the western political ideologies. "Samkyunju-ui" is the product of his efforts to create a new universal ideology which is relevant to our nation's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y. In Samkyunju-ui, he emphasized more equality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 spheres, which we need to adopt in the era of knowledge society and globalization.

Key Words: Cho So-ang, Samkyunju-ui, globalization, global civilization standard, neo-liberalism, nationalism, ideology